

石洲集 국역 출판과 權韓先生

석주집

권필선생

(역자 : 정민 교수,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도중에 보슬비를 만나
천등촌(天燈村)에 머물러 자다
途中遇小雨 宿天燈村

이집 들어 더위 기운 문득 시원해지니
보슬비 부슬부슬 가는 길에 지옥하다.
안개 보고 비로소 밋밋 있음 어여쁘네
숲에 들자 도리어 가늘어 소리 없네.
처마 사이 제비는 물 맞을까 근심하고
임 아래 옛비둘기 날 개라고 우는구나.
농가에서 밤에 자다 즐거워하는 말 들으니
나그네가 새벽길을 걸네는 줄 모르는 듯.

朝來暑氣忽淒清
小雨冥濛去程
着露始憐纔有色
入林還覺細無聲
簷間語燕應愁濕
簷底鳴鳩未曉晴
夜宿田家聞喜語
不知行客怯晨征

해직 후에 짓다
解職後題

평생을 쓸모없이 터럭만 실날같고
박한 벼슬 처량하여 주림도 못 구하네.
물노라 술 취해 관장의 욕먹음이
돌아가 야인의 삶 기약함과 어찌한고
선달 술 서둘러 열어 새 술을 맛보고
맑은 처마 향해 앉아 묵은 시를 뒤적이네.
제생을 물리고서 깊이 문을 닫으니
병중에 잠자는 게 가장 마땅하구나.

平生樛散鬢如絲
薄宦淒涼未救飢
爲問醉達官長罵
何如歸趁野人期
指間臘甕嘗新醞
更向晴簷舊詩
謝遣諸生深閉戶
病中唯有睡相宜

투 고

잘 알려지지 않은 자연관광 명소

지리산

우리일행은 1998년 8월 1일자에 지리산 화엄사와 도중에 남원 광한루 지리산 온천지역 방문을 며칠 전부터 예약하고 무더위를 무릅쓰고 순회 관광의 길에 올랐다. 서울지방에도 장마비는 그칠 줄 모른다. 일기예보에 우리나라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 호우경보가 영남지방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되고 있었다. 그러나 장마철에 별다른 일이 있을까 싶어서 큰 걱정 없이 아침 8시에 중부고속도로를 타서 서청주를 거쳐 대전에서 호남 고속도로로 달렸다. 빗줄기는 간간히 멈추었다가 내리는 간헐적인 경우였고 비 구름은 남쪽으로 이행하니 우리는 비를 피하며 가는 것이 아니고 비를 쫓아가는 꼴이 되었다. 일단 목적지가 지리산 밑의 구례군 화엄사이기 때문에 화엄사를 먼저 들리고 지리산 온천욕과 남원 광한루를 들러서 상경하도록 계획하였다. 지리산은 이미 지역방향에 따라 입출입 방향이 상이함으로 수십 년 전에는 경남 진주 방향에서 대원사 천왕봉 쪽으로 올랐고 또 경남 함양 산청 쪽에서 내왕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화엄사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명산에는 꼭 대찰이 있기 마련이다. 지리산도 우리나라 백두산 묘향산 금강산 한라산과 아울러 5대 명산에 들어가고 일명 웅장한 산세를 보더라도 고래로부터 방장산이라는 별명이 붙어 다닌다. 지리산에도 이름난 절인 화엄사를 비롯하여 대원사 온천사 연곡사 쌍계사 실상사 태안사 등이 있다. 전라선을 통과하여 푸른 평야의 들판을 바라보면서 어느덧 임실을 지나 남원골 춘양 터널을 지나니 빗줄기는 멈추고 따가운 햇볕이 쏟아진다. 하천개울은 황류로 팍차쳐 포말을 일으키며 급류가 되어 도도히 흐른다.

국립공원 지리산 화엄사 입구에 도착 시간은 점심시간이 지나 시계는 오후 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다. 주차장 근처 지리산 관광 식당에서 산채 비빔밥을

로 점심을 마치고 화엄사 쪽으로 차를 모니 이번 수해로 화엄사 입구를 지나서 포장도로가 유실되어 차량통행이 통제되었다. 차는 주차장에 대기하고 걸어서 화엄사를 향하는데 도로는 빗물로 수로가 되어 있고 화엄사 방향 오른쪽 계곡은 급류와 황류이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연상하는 계곡의 물줄기는 장관을 이루었다. 정말 물의 힘이 무서운 줄 실감을 하게 되었다. 산 구경 절 구경보다는 물 구경이 더 좋은 형편이었다. 전산에는 진땀이 흘러내렸고 신발은 도로의 물로 침수되었고 산속의 물은 양쪽으로 폭포를 이루어 쏟아지는 장관은 정말 이런 장마때가 아니면 볼 수 없는 진경명이 되고 말았다.

드디어 최초의 일주문이 나타났다. 이 일주문에는 해동선종대가람(海東禪宗大伽藍)이라는 현판이 뚜렷하다. 이 일주문을 지나 10여분 올라가니 절 앞쪽에 1간(間)1호(戶)의 일주문에는 지리산 화엄사 현판액이 있다. 화엄사의 전경이 눈에 들어오고 매미소리 물소리 바람소리가 어우러져서 하모니를 이룬다. 절을 찾는 관광객 불자들도 절로 가는 통로를 메운다.

울창한 지리산 숲속에서 새어나오는 찬바람은 열을 덩어리를 만지는 것 같이 너무나 차디차다. 웅장한 대웅전 그리고 각황전(覺皇殿)은 규모가 크고 건축양식이 별다른 데가 있다. 문헌에 의하면 화엄사의 창건은 544년(백제 성왕 22년) 연기조사(緣起惟師)가 창건하고 신라 30대 문무왕 경오년에 영주 부석사를 창건한 의상대사가 3층 4면 7간과 장육전 석조건물을 세웠다. 그간에 몇 번의 중축이 있었으나 1597년(선조 30년)에 임진왜란의 병화를 입어 불타버렸으나 1636년(인조21년)에 각황전 보제루(普濟樓) 원통전(圓通殿) 응향각(凝香閣) 적묵당(寂默堂) 금강문(金剛門) 천왕문(天王門) 등이 복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화엄사라는 절 이름은 화엄경의 화엄의 두 글자를 따서 붙인 것이라고 한다. 각황전은 정면 7칸 측면 5칸 중층 8작(作)지붕이 웅대한 불전으로 우리나라 절 중에서 유수의 대견축으로 알려져 있다.

임진왜란 때에 병화를 입은 후 1699년(숙종25년)에 재건에 착수하여 1730년에 완성하였다고 한다. 화엄사 각황전은 국보 제67호 각황전 앞 석등 국보 제12호 대웅전 보물 제299호 동5층탑 보물 제132호 3층 사자석탑 국보 제35호 사5층탑 보물 제133호 원통전 사자탑 보물 제300호로 지정되어 있다.

화엄사 입구를 지나 오른쪽에 근래에 세운 듯 한 고려 때의 대각국사 의천(義天)의 효대(孝治)시비가 세워져 있다. 이 시비(誌碑)를 소개해 본다. 적멸당전다승경(寂滅堂前多勝景) 길상봉상절멸에(吉祥峰上絶滅埃) 방황진일사전사(彷徨盡日思前事) 모흔비몽기효대(暮昏悲願起孝臺) 적멸당앞에는 경치도 빼어나고 길상봉은 봉우기 티끌도 없었네.

진종일 방황하며 지난 일 생각하니 저든날 가을바람 효대에 감도네. 화엄사의 뒤편은 노고단 삼도봉 반야봉 토끼봉 피아골이 있고 앞으로는 구례읍 평야지대를 바라보며 더 나아가면 삼진강에 이른다.

화엄사 정문에서 오른쪽은 남원 임실 방향이며 왼쪽은 하동 진주방향이다. 산 너머는 거창 함양 쪽이다.

화엄사를 안고 있는 지리산은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를 접경으로 우뚝 솟아 웅장한 모습을 나타내고 주봉 천황봉을 비롯한 연봉들은 늘 예측하지 못하는 일기 변화로 구름과 안개가 개었다가 피어나고 바람의 방향을 가늠할 수 없도록 불규칙한 것도 먼저 알아야 한다.

어떻게 보면 소백산과 비슷한 데가 있다.



▣ 향촌 권 오 창



우강 권이혁 전장관 에세이

모르고 있던 일들

근래에 와서 알게 된 것이나 알게 된 일들이 적지 않다. 그만큼 그동안 나는 모르고 있던 것이나 모르고 있던 일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이다. 여기에서는 새롭게 알게 된 일들을 네 가지만 소개하지만, 그 외에도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이나 일들은 수 많이 있을 것이다.

고당(高堂) 커피
오래간만에 장남 윤택(允澤) 내외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시 귀국해 2008년 10월 30일(목) 가족들과 함께 남양주 한강변에 있는 식당에 가서 점심을 든 일이 있다. 가족들이란 언제나와 같은 4세대 가족을 말한다. 아름다운 한강변 경치를 감상하면서 먹는 음식도 좋았지만, 그보다도 귀로에 들른 고당 커피집이 인상적이었다. 팔당호를 지나 양수리 방면으로 약 5분 정도 가면 조안면사무소가 있다. 이 면사무소 맞은 편에 88칸 크기의 전통 한옥이 있다. 그곳이 고당 커피집이다.

지은 지 1년 반 정도 됐다는 그 ‘대궐’은 전형적인 전통한옥이다. 큰 대문을 들어서면 안채가 있고 사랑채가 있다. 안채에는 로스팅(Roasting)카페가 있고, 사랑채에는 자그마하게 나누어진 방이 여러 개 있다. 후원에는 누각 비슷한 공간도 있다. 로스팅이란 커피 생두(生豆)에 화력을 가해 성분의 화학적 변화에 더해 색·맛·향을 만드는 가공공정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최상의 커피를 만들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엄선된 커피 생두를 구입하여 대형 로스터(Roaster, 용량 10kg)로 직접 로스팅한 원두로 커피를 추출하기 때문에 항상 향이 풍부하고 신선한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 한옥에는 주인이 생활하는 거처도 있다고 하는데 나는 직접 그곳까지는 가보지는 않았고 주인도 만나보지 않았다. 다만 종업원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소개할 뿐이다. 고당(高堂)에 무슨 뜻이 있는나고 몰랐더니, 별 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저 높은 곳이라는 뜻에서 작명된 것이라고 한다.

나는 그 커피집을 선전하기 위해 글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저 인상적이어서 소개할 뿐이다. 커피 한잔에 7천 원이고 리필도 해주는데, 손님이 원하는 대로 방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다. 그날도 몇몇 여성분들이 한 방을 차지하고 즐겁게 이야기 나누는 장면을 봤다. 도시를 벗어나 전통한옥에서 커피를 마시며 삶의 여유를 즐기는 재미도 일품일 것이다. 우리 4세대 가족도 대단히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고당’은 영화 촬영지로서도 활용되고 있으며, 그날도 촬영차량이 와 있었다. 나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둘째 딸 성택(星澤)이가 그 집을 발견했는데, 그것도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에 우연히 차장을 통해서 봤다고 한다. 성택이의 해안이 대단하다고 느꼈다. 그 커피 집에는 아메리카 커피, 라틴아메리카 커피, 아시아 커피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커피 원두도 판매하고 있었다.

거리의 세미나실
2008년 11월 4일(화)서울대학생회 초청으로 의대에서 특강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학생회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행사라고 하며 대학 당국과는 무관한 순수 학생들의 행사라고 한다. 교섭을 받은 것은 꽤 오래되었는데 나의 사정으로 그날을 잡은 것이다. 연건캠퍼스의 의대·치대·간호대생들이 대상이라고 한다.

저녁 7시에 시작한다고 하며 6시경에 의대 동창회관 내 중구식당 ‘합춘원’에서 의대·치대 학생회장들 및 간부학생 2명과 함께 저녁을 들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 의대 학생회장이 사정을 알아보겠다고 왔다갔다 하더니 7시 가까이 되어 강의실로 안내하겠다고 한다.

안내받은 곳은 의대 교실이 아니고 대학로에 있는 ‘민들레 영토(MINTO)’라는 건물이었다. 나는 가본 일도 들어본 일도 없는 곳이었다. 4층 건물인데 1층은 식당인 것 같았고, 2·3·4층에는 ‘세미나실’이라고 칭하는 방이 16개 있다고 한다. 4층에 있는 세미나실로 안내되었다.

‘민들레 영토’는 대학로의 두 곳을 비롯하여 전국에 20여 곳이 있다고 한다. 안내된 세미나실이 그 건물 내에서는 가장 큰 25인용 세미나실이라고 한다.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간부학생 1명이 외부에서 온 인사이고, 나머지 20여명은 의대 2·3·4학년생이었다. 나의 집

작으로는 예정했던 장소에 학생들이 적게 모여서 이곳으로 안내한 것이 아닌가 느꼈지만 사실은 모르겠다.

어쨌든 리더십(Leadership)’이란 제목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리더십은 바람직한 인간의 조건을 구비한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 우선은 vision이 있어야 하는데 건전한 vision을 갖추기 위해서는 마이동풍(馬耳東風)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 등, 평소 즐겨 강조했던 이야기들을 되풀이했다. 학생들은 진지한 자세로 경청했다. 그리고 많은 질문이 쏟아지기도 했다. 그러저럭 2시간 반 넘게 계속되었다.

나는 그날 밤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학생들이 그룹을 만들어 ‘세미나실’에 와서 공부한다는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이야기가 끝나고 9시 반경에 복도에 나와 보니 5,6명의 학생들이 인쇄물을 놓고 서로 토론하는 광경들이 이 방 저 방에서 보였다. 모두가 서울의 대학생이라는 것이다. 나는 대단한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세상을 발견한 듯한 느낌을 가졌다.

그날 저녁에 받은 인상이 하도 강해서 나는 지나온 일들을 떠올려 보기도 했다. 1970년대 학장시절에 교육과정을 개편했던 일, 블록 렉처(block lecture, 통합교육)를 시작했던 일, 후에 그 방법이 PBL(Problem Based Learning)로 발전한 일 등이다.

11월 10일(월) 서울의대 임정기(任廷基)학장, 신희영(申熙泳)교무 담당 학장보, 김용일(金勇一) 전 가천의대·을지의대 총장을 ‘민들레 영토’로 초청하여 오찬을 함께했다. 임 학장과 신 교수는 ‘민들레 영토’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지만, 김 총장은 나와 같이 처음이라고 한다. 학생들이 이런 식의 세미나실에 와서 공부하게 된 역사는 이미 10년 가깝다는 이야기였다. 종업원에게 물으니 1인당 5천 원씩 입장료를 받고 물컵을 대접하며 그 물컵을 가지고 1층으로 가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커피나 주스를 즐길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방을 쓸 수 있는 시간은 3시간이며 3시간을 넘게 되면 시간당 5백 원을 더 받는다고 한다. 참으로 흥미진진한 이야기였다.

독도화가 권용섭



〈독도로 가는길〉('02 권용섭 작)

재미 독도화가 권용섭画가는 미국 LA 문화원에서 지난 2월10~27일까지 ‘독도로 가는’('02 권용섭작) 초청 전시를 했으며 이어 3월1일(3·1절)에는 LA 한인회관에서 앵콜전을 했다.

“독도를 그려온 우리가족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특정 소재에 10년 이상 빠져드는 것은 작가로서 창작성 퇴보라 생각하고 또 다른 모티브를 모색하려 하니 여러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5년간 가족이 독도를 그려 지구촌 20여 개국을 돌며 100여회의 퍼포먼스와 전시로 독도의 문화 실효적 지배를 추진해온 권용섭 가족이 2월 10일부터 LA한국문화원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실제로 그는 독도에서 보트를 타고 여러 차례 스케치 탐사를 했다.

동도의 한반도 지도와 서도 뒤편에 백

두산 천지, 해태바위를 찾아내어 독도를 미술적 소재의 지도로 그려낸 주인공이기도 하다.

이처럼 현장에서 짧은 시간에 제작되는 권씨의 작품은 모필과 먹으로 한국선 조들의 풍류정신을 이은 전통기법이라고 한다. ‘수묵속사’란 과감한 발묵(潑墨)의 터치에도 실경의 리얼리티로 표현되며, 현장의 이야기와 평온함을 보여준다.

권씨는 독도, 제주도, 안면도, 연평도를 다니면서 한국영토 주권활동이야 말로 독도 문화적 홍보라고 생각하며 세계 각국의 섬들과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이번 전시의 테마이다.

권용섭씨는 가족(여영난, 권정실, 진실)은 모두 그림을 그리며 국내외 독도행사 초청만 해도 100여회에 달하여 ‘독도화가’로 잘 알려져 있다.

2000년 경찰청 ‘권용섭의 아름다운 독도전’을 시작으로 2002년 월드컵 기념(50×15미터) 수묵 퍼포먼스, 경상북도와 국회의사당, 평양, 일본인학교 등 이념을 넘는 퍼포먼스와 전시를 했다.

2002 한일공동어업협정 제협상 주장, 고종직령 41호 ‘독도는 조선 땅’ 선포 109주년기념 세종문화회관 전시를 함으로 다케시마의 날 4회를 무색케 했다.

KBS 박종훈쇼, MBC 문화Yo, 특집 다큐멘터리 등 30여회를 출연하며 독도문화대사 역할을 해왔다.

한국 미협활동을 하다가 2004년 도미한 권씨는 각 나라 기관에 독도홍보는 물론 페루의 베제스타섬, 아이티, 북한의 해금강, 미국의 천성과 멕시코 등 미지의 세계를 한국화로 일구어 ‘권용섭의 지구촌 수묵그림기행’ (시카고 중앙일보)중에 있다.

이 달 의 시

봄



권순채
(향토문화연구가)

부슬비 내리는 밤

꿈속에 꽃이 핀다

눈 얼음 속아 내리는

시냇물 소리에

버들 강아지 부풀어 오르면

개구리가 놀라 깨어 나온다